

크리스티앙 라크로와(Christian Lacroix)의 디자인 특성 연구

천 지 영 · 배 수 정(전남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크리스티앙 라크로와(Christian Lacroix, 1951 ~)는 남부 프랑스 출신의 디자이너로, 귀족스러운 화려함과 독특한 색채감각, 뛰어난 구성방법으로 패션의 연금술사라는 찬사를 받고 있으며, 86년과 88년 2회에 걸쳐 '황금 골무상'을 수상하여 현 오뜨꾸뛰르의 최고의 디자이너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다.

크리스티앙 라크로와는 감각을 자극하는 모든 것이 디자인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동서양 · 과거와 현재 · 원시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을 섞어 끊임없이 새로움을 창조하고 있다. 따라서 라크로와의 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한 의상에 혼합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첫째, 과거 복식의 구성 형식을 응용하고, 트리밍이나 악세사리, 문양을 포함한 소재면에서 과거의 느낌이 나거나 과거의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나타난 역사주의적 특성이다.

둘째, 강렬한 원색 또는 원색의 대비와 프린트, 문양의 조화로 원시적 이미지를 나타낸 원시주의적 특성이다.

셋째, 자연스러운 드레이프를 많이 사용한 형태, 흘러내리는 듯하거나 가공하지 않은 것 같은 투박한 소재에서 나타난 자연주의적 특성이다. 이와 더불어, 동양풍 문양과 누비, 패치워크, 실크 등의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에스닉한 특성을 강하게 나타내기도 하였다. 각각의 예는 다음의 그림 1, 2, 3에 제시되었다.



〈그림 1〉 '99 F/W
HAUTE
COUTURE



〈그림 2〉 '99 S/S
HAUTE
COUTURE



〈그림 3〉 '98 F/W
HAUTE
COUTURE